

2017년 5월 11일, 구좌읍 행원리 행원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한군섭(남, 1933년생, 구좌읍 행원리)

- 줄거리: 구좌읍 행원리는 어업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. 제보자는 더벵이물이란 곳에 난파선이 침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주걱, 술 등을 얻고자 새벽에 난파선 근처에 갔다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. 그 외에도 아침에 고기를 낚으러 가면 도깨빗불이 많이 나타났었다고도 한다.

[조사자] 옛날에 여기서 도깨비 같은 건 따로 안 모셔난마씨?

[제보자] 도깨비? 거 얘기, 도깨비가 많이 잇지, 지금도. 우리는 도깨비가 많이 잇는게.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바다 영업 현재두 허는다. 바다에난 옛날 그 일제시절에 그, 구호선이라고 헛주. 베 하여튼 침몰 많이 헤낫어.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이 기. 도깨비가 많이 나. 우리 저 아침에 고기를 잡으려 가나, 뭐 문어? 뜯어 낚시 것들 잡으려 가고. 도깨비들이 막 비ocha.

[조사자] 바다에마씨?

[제보자]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나그네 불이 비치곡. 우리 저 나도이 저, 더벵이물이엔 헌디. 거기서 에, 옛날 그, 무역선이 하나 그, 침몰햇는다. 게서, 그게 그, 오십년 됐는데. 나 거길 왜 거길 가게 됐냐면. 옛날엔 거 나무주걱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인자 막 술벵덜이 많이 나완. 우리 많이 헤단 그걸 건져단 먹었는다. 나무주걱이 막 파도에 올라오니깐 그걸 건지레 가보니까 밤중에 훈 세시 쯤에 간 보니까 그냥 여전히 불이 켜 잇어. ‘하!’ 이건 이젠 헨. 그런 겁을 먹으면서…….

[조사자] 겐 도망나완마씨?

[제보자] (웃음)

- 핵심어 : 도깨비, 구호선, 배, 침몰, 아침, 고기, 나무 주걱, 술병, 파도, 불, 난파선, 도깨빗불